

신재 최산두 시의 문학적 특성 연구*

김진욱**

차 례

1. 序論
2. 新齋詩 概觀
3. 新齋詩의 文藝美
4. 結論

| 국문초록 |

신재 문학에 대한 이해는 16세기 호남 문학을 이해하는 기초이다. 『新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한시 작품은 17제 18수이다. 이 가운데 오언시가 3수, 칠언시가 15수이다. 신재는 칠언시를 주로 지었다. 또한 고시가 3수, 근체시가 15수이다.

신재 시문학의 내적 특성을 기준으로하여 자성과 관조, 교유로 분류를 하였다. 그리고 분류된 주제에 따라 3개의 절로 나누어 그 문학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문예미를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신재 시의 문예적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연유하는가를 밝혔다.

자성의 시로 분류한 신재의 <魚網>과 <天子菴遊觀>에서는 익숙한 시어와 신선한 구성을 통한 '거리두기'가 돋보인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관조 시에서는 고도의 상징이 뒤튼린 구조를 통하여 문예적 아름다움을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교유시에서는 낯설은 조어를, 익숙한 시어를 사용하여 낯설음과 익숙함의 조화를 구하고 있는 점이 탁월하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신재의 시 창작 기법은 그의 작품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신재 시문학의 특성이고 신재 시를 읽는 즐거움이다. 신재가 이처럼 탁월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은 16세기 호남 사림의 문화적 영향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갈구는 16세기 호남사림의 정체성이었다. 앞으로 신재 시문학의 형성과 계승이라는 차원의 영향 관계와 신재 시문학이 16세기 호남 사림 문학에 기여한 바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제언한다.

핵심어 : 신재 최산두, 호남사림 문학, 자성 시, 관조 시, 교유시

* 본 논문은 광양시 <신재 최산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 조선대학교 교수

1. 序論

신재는 서기 1483년에 출생하였다. 1483년은 성종 14년으로 조선의 문치가 기반을 확립하는 시기였고, 조선조 사림이 훈구파에게 도전을 시작하던 시기이다. 신재는 1536년에 졸하였으니, 향년 54세로, 이때가 중종 31년이다. 신재는 성종-연산군-중종조를 살다 간 인물이다.

신재는 1519년 중종 14년에 37세의 나이로 화순으로 유배된 후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때 함께 도학 정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정암이 죽었다. 신재는 학문적 동지이자, 막역한 친우였던 정암(1482년)보다 1년 늦게 출생하였고, 정암과 함께 정치적 생명을 마쳤다(1519년)고 볼 수 있다.

신재가 졸한 1536년은 율곡과 송강이 출생한 해이다. 훈구파와 사림의 대결에서 사림이 승리하였으며, 호남 문학의 穆陵盛世가 시작하던 시기이다. 신재는 사림의 도학 정치와 16세기 호남 사림 문학의 중흥을 준비하던 시기를 살다 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신재의 지분이 없을 리 없다.

신재의 시문학은 대부분 散逸되어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것이 신재 시문학 연구가 어려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현재 전하는 신재의 시문 수는 아주 소략하고 출처가 한 곳이다. 신재 시문학 작품은 草溪崔氏大同譜編纂委員會에서 1989년에 발간한 『新齋集』¹⁾에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신재 시문학 연구는 『新齋集』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新齋集』에 전하는 신재의 시문학은 <綱目賦> 1편과 17제 18수의 한시 작품이 전부이다.

신재의 <綱目賦>는 22세 때 과시로 창작한 작품이다. 남송의 주희가 저술한 자치통감강목이라는 역사서에 대해 賦體로 찬미한 시문이다.²⁾ 수작이긴 하나 신재 한시의 문예미를 고찰하고자 하는 본 논의의 목표와 상이점이 크므로, <綱目賦>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신재 한시는 순천대학교 백숙아 교수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³⁾ 그

1) 崔山斗, 『新齋集』, 草溪崔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89. 『新齋集』은 이본이 없으므로, 이하 『新齋集』으로 명명함.

2) 崔山斗, 『新齋集』, 草溪崔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89.

3) 백숙아, 「신재 최산두 연구」, 순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백숙아, 「신재 최산두의 시세계」, 『한국시가문화연구』 18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06.

백숙아, 「白雲風流와 三傑의 思惟」, 『한국시가문화연구』 28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1.

러나 연구의 확산이 활발하지 못한 것 역시 사실이다. 신재 한시의 작품 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근원적 이유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신재 시문학에 대한 관심 자체의 부족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신재 시문학에 대한 기초 연구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재 한시 연구의 확산에 있다. 작품 수가 많진 않지만, 작품의 예술적 아름다움이 빼어나다는 것을 논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16세기 한국문학의 격동기를 이해하는데 신재 문학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재 한시의 문예미가 어떠한 점에서 탁월한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新齋 詩 概觀

신재 한시의 문예적 아름다움을 논하기에 앞서, 전체 작품에 대한 개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新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한시 작품 수는 17제 18수이다. 16수의 작품은 단편이고, 단 1수만이 연작시이다. 신재는 연작시를 즐겨 짓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⁴⁾ 연작시인 <輓安思齋堂 二首>는 사재당의 죽음을 애도한 작품이다. 『新齋集』에 <사재당 안처순에 대한 만사 2수>라고 명기되어 있으니, 연작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輓安思齋堂 二首>의 시제를 보면 ‘안사재당을 애도하다.’이다. 작품을 살펴보자. 신재의 <輓安思齋堂 二首>의 첫수는 칠언율시이고, 두 번째 수는 칠언고시이다. 이러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조 유자의 연작시는 동일한 형식을 반복해서 사용한다.

또한 작품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첫수와 두 번째 수의 시정에 ‘격함과 내화’라는 묘한 차이가 있다. 첫수가 사재당 죽음 직후에 지은 것이라면, 두 번

백숙아, 「신재 최산두 한시를 통한 인문학적 문화콘텐츠 구축 방안」, 『한국시가문화연구』 53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24.

4) 선조까지는 연작시가 횡행하지 않았다. 연작시가 시형의 주류로 떠오르게 된 것은 16세기 호남 사람이 연작시를 즐겨 짓기 시작하면서이다.

째 수는 죽음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지었다고 유추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창작 방식은 조선조 유자의 만시에 있어 흔한 경우이다. 특징인에 대한 만사를 시간을 두고 여러 편을 짓는 경우는 그 전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輓安思齋堂〉은 輓詩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상투적인 시제이다. 조선조 유자가 지었던 輓詩의 시제를 보면, 절반 이상이 輓○○○○, 弔○○○○이다. 그렇다면 『新齋集』 편찬 과정에서 시제가 동일했기에, 한 작품으로 혼동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신재 시는 18제 18수이다. 여기에서는 증명할 수 없으므로 『新齋集』에 충실하여 17제 18수로 보고자 한다.

신재의 〈題勿染亭〉과 〈題丑川亭〉은 下二句가 逸失된 작품이다. 백숙이는 〈題勿染亭〉에 대하여 “이 시는 앞의 두 구가 일실(逸失)된 작품이다. 비록 두 구만 남아 있지만 비유나 함축적인 시적 매력이 넘친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맑고 고요한 일상의 자연을 읊었다.”⁵⁾라고 평하였다. 『新齋集』에 ‘上下句缺’⁶⁾이라 명시되어 있으니, 이러한 해석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서 고찰해 봐야 할 점은 시제를 신재가 직접 명기했느냐이다. 조선조 유자의 제영시는 일반적으로 ‘題○○○○’의 시제를 갖는다. 시제를 풀면 글자 그대로 제영시의 특성인 ‘○○○○을 노래하다.’이다. 위의 두 작품은 제영시이고, 시제가 없었다면 가장 일반적인 시제를 붙였을 것이다.

조선조 유자는 좋은 짓구가 떠오르면, 그것을 가지고 시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바로 對를 찾으면 작품이 되고, 어떤 것은 그냥 짓구로 남기도 한다.⁷⁾ 작품이 되면 이름을 갖고, 그냥 짓구로 남으면 이름을 갖지 못한다. 여기서는 『新齋集』의 기록에 기반하여 작품으로 보고자 한다.

『新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한시 작품은 오언시가 3수, 칠언시가 15수이다. 이것으로 신재가 칠언시를 많이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시가 3수, 근체시가 15수로 고시보다 근체시 창작을 즐겼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신재가 오언보다 칠언을 선호한 것은 유장한 호흡을 좋아하였고, 고시보다 근체시를

5) 백숙이, 「신재 최산두 한시를 통한 인문학적 문화콘텐츠 구축 방안」, 『한국시가문화연구』 53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24, 15쪽.

6)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 下二句가 逸失된 작품이다.

7) 『新齋集』, 〈題勿染亭〉. 江含白玉窺魚鷺/山吐黃金進蝶鶯. 栗谷, 〈花石亭〉의 경면에서 詩想을 얻었다. 山吐孤輪月/江含萬里風

즐거 지은 것은 시형식의 특장을 고민했다는 논의의 작은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체시 15수 중에서 절구가 11수이고, 율시가 4수이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新齋集』 시 형식〉

	오언시	칠언시	합계
고시	1	2	3
절구	1	10	11
율시	1	3	4
합계	3	15	18

신재 한시 형식에 두드러지는 특성은 칠언절구를 가장 많이 지었다는 것이다. 신재의 작품 세계는 ‘고시와 절구는 오언이고, 율시는 칠언이 기본이다.’라는 한시의 일반적 성격에 비껴서 있다. 이러한 신재 시형의 특성은 16세기 문학의 변화를 추구했던 호남 사림의 시도가 내재돼 있다.

신재 시는 각각의 작품이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시상을 잘 소화하고 있다. 장을 달리하여 신재의 작품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3. 新齋 詩의 文藝美

3.1. 自省의 詩

조선조 유자의 作詩를 흔히 茶飯事로 표현하곤 한다. 이것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시인만이 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시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유자라면 ‘왜 누구나 시를 지어야 했을까?’이다. 그 답은 그들의 신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조 유자가 걸어야 할 삶의 목표 지점은 ‘平天下’였고, 그 출발점은 ‘格物, 致知, 誠意, 正心’이었다. 조선조 유자라면 누구나 걸어야 할 길이었다. 조선조

유자의 작시는 ‘格物, 致知, 誠意, 正心’의 수단이었으므로 누구나 작시를 해야 했다. 그것도 좋은 시를 지어야 했다.

생똥똥보는 작가와 작품의 관계에 대해 ‘그 나무의 그 열매’라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명쾌한 명제가 다양한 수사를 통해 수없이 재생산되었다. 그러나 작가와 작품에 대한 관계는 이 명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풍격론이 그 예이며, 신의 론이 나온 까닭이 그 답이다.

반성은 발전을 위한 도구이다. 공자의 정통을 받았던 증자가 ‘吾日三省’ 했던 이유도 나아가기 위해서였다. 조선조 유자는 자성을 위해 작시를 했다. 이러한自省詩⁸⁾를 짓는 것이 그들의 공부였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조 유자의 작품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손쉬운 일이다.

신재의 자성시는 이러한 조선조 유자의 일반적 자성시에서, 그 유형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漁網>과 <天子菴遊觀>, 두 작품을 통하여 신재가 추구했던 세상의 의미망을 논의하고자 한다. <漁網>에서는 철학의 내재화를 논하고, <天子菴遊觀>에서는 신재 시의 표현적 아름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鱗結義繩數可深	伏羲氏 ⁹⁾ 의 의리로 촘촘히 엮은 그물이
長江水盡積如林	長江 너른 물에 숲처럼 가득하네
設網以法無遺細	법으로 설치한 그물이라 작은 틈도 없으니
雖有吞舟不敢侵	배를 삼킬 큰 고기라도 감히 침범치 못하리.
	<魚網> ¹⁰⁾

법망의 사전적 의미는 “법의 그물이라는 뜻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그 집행 기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¹¹⁾”이다. 오늘날에도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다. 신재는 법망을 漁網으로 치환하고 있다. 이 어망으로 잡고 싶은 것은 미꾸라지 같은 작은 물고기가 아니다.吞舟할 수 있는 큰

8) 自省詩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가 사용하는 용어이다. 여기에서는 폭넓은 개념으로 시적 제재의 대상이 ‘나’이며, 자신에 대한 성찰, 본인의 이상, 신념 등이 시화된 작품을 일컫고자 한다.

9) 『新齋集』, 93쪽. 伏羲氏: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이다. 삼황오제의 首位를 차지하여 팔괘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의 방법을 가르쳤다.

10) 『新齋集』, 93쪽.

11) 표준국어대사전.

물고기이다. 훈구파를 비유하고 있다.

신재의 신념이 즉자화된 작품이 <漁網>이다. 시제 역시 비유를 했지만, 직접적이고 작품의 내용 역시 직설적이다. 신재의 다른 작품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시정이다. 신재의 <漁網>은 옹혼의 풍격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백숙아는 이 작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이 詩는 표면적으로 天理를 유지함으로써 사사로운 욕망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겠다는 성리학적 心性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옳지 않은 구속으로 여기고 현실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자연의 현상과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¹²⁾

신재의 <漁網>은 백숙아의 지적처럼 “현재의 상황을 옳지 않은 구속으로 여기고 현실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어내는 것이 이 작품을 읽는 즐거움이다. 신재의 <漁網>은 시어의 조탁에 공을 들였던 다른 작품과는 달리 시의 기상을 살리는데 충실하였다는 점이 매력이다.

同來白髮好風情	같이 온 늙은이 풍취도 좋을시고
筇屐斜陽氣太清	지팡이 쪼았다만 석양빛 같이 맑구나.
何處靑菴別界	세상 밖의 청암은 어디메뇨
穿林故向暮鐘聲	종소리 좇아 숲을 헤치고 찾아가네.

<天子菴遊觀>¹³⁾

신재의 <天子菴遊觀>은 조선조 유자의 전형적 시작법에 충실한 작품이다. 이러한 이유로 작품의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다. 절구의 기본표현 양식인 前景後情의 묘를 잘 살린 작품이다. 작품의 내용 역시 자연을 대하고 나서, 그 감흥을 修己로 이끌어가는 자성시의 전형이다. 이 시에 대하여 백숙아는 “自然景物을 통하여 性情을 도모하고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고자 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¹⁴⁾ 라고 평하였다. 자성시의 기본적 틀을 유지한 작품이다.

12) 백숙아, 「白雲風流와 三傑의 思惟」, 『한국시가문화연구』 28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1, 164쪽.

13) 『新齋集』, 90쪽.

14) 백숙아, 「白雲風流와 三傑의 思惟」, 『한국시가문화연구』 28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1, 164쪽.

기구의 同來白髮은 신재이다. 同來는 칠절의 운을 맞추기 위한 허사이다. 天子菴을 遊觀하고 있는 신재 자신이 시재인 것이다. 이 늙은이가 찾고자 하는 것은 靑菴이다. 모든 것이 정화된 장소라 볼 수 있겠다. 나아가 자신의 정화를 비유하고 있다. 그러니 별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暮鐘聲은 멀리 산사에서 아란히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이다. 이 시어는 그 정취가 중요하다. 暮鐘聲은 조선조 유자의 시에서 다양한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 시어다.

신재의 <天子菴遊觀> 시어를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다. 이 작품의 시어 중 白髮, 風情, 筇履, 斜陽, 何處, 靑菴, 別界, 穿林, 暮鐘聲 등 9개가 조선조 유자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시어이다. 칠언절구 28자 중 19자를 관용어로 채웠음에도 시적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매력이다.

신재가 시 창작에 있어서 用事를 즐겨 사용했다는 사실은 <영우두>, <영오>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¹⁵⁾ 이 작품에서 역시 故向이라는 典據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익숙함을 배가시키는 것은 시어와 더불어 점화의 사용이다. 결구인 穿林故向暮鐘聲은 소동파 <定風波>의 첫구 莫聽穿林打葉聲의 점화이다. 穿林故向은 莫聽穿林에서 가져왔고, 暮鐘聲은 打葉聲에서 가져왔다. 유명한 첫구에서 가져왔음에도 그 의취가 손상되지 않았다. 여기서 신재의 뛰어난 시적 표현 능력을 알 수 있다. 점화의 모범¹⁶⁾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신재의 <天子菴遊觀>이 읽는 즐거움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작품 구성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은 기구와 승구, 전구와 결구를 뒤집어 읽으면 뜻이 명료해진다. ‘지팡이는 짚었지만 석양빛 같이 맑은 기운이 풍취가 좋구나’라는 평범한 문장을 신재는 멋진 시로 탈바꿈 시킨 것이다. 전구의 何處 역시 작품의 마지막 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곳은 어드메뇨’라는 관용구이다. 신재는 의도적으로 기구와 승구, 전구와 결구를 뒤집어서 익숙함과 낯섬을 교차하고 있다. 익숙한 시어와 신선한 구성을 통한 묘한 ‘거리두기’가 이 작품의 문예적 아름다움이다.

15) 신재 시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용사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16) 『新齋集』, <題勿染亭>. 江含白玉窺魚鷺/山吐黃金進蝶鶯. 栗谷, <花石亭>의 頸聯, 山吐孤輪月/江含萬里風. 신재 시는 용사에 있어 막힘이 없었고, 점화의 자연스러움이 지극히 뛰어났다.

3-2. 觀照의 詩

觀照詩¹⁷⁾는 관조가 시의 주된 정서가 되어 창작된 시를 일컫는다. 관조의 사전적 의미는 ‘조용한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본다.’이다. 문예 비평에서 칸트(I. Kant)는 관조를 무관심적 태도로 규정하였다. 무관심적 태도는 대상에 대한 주체의 사적인 이해 관심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스톨리치(J. Stolnitz)는 관조의 의미를 무관심적이면서도 대상에 대한 공감적인 인식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로써 관조의 태도는 대상에 대한 특수한 주목 능력으로서 이해된다.¹⁸⁾

오늘날 현대문학 연구에서는 관조와 사색을 구별하고 있다. 하지만 국문학 연구에서는 관조-사색-성찰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관조라 지칭하고 있다. 시인이 대상을 관조하고, 나아가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 성찰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국문학에 있어서, 관조가 성찰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일반적으로 관조시는 관조 그 자체만이 시화되는 경우가 있고, 사색에서 멈추는 경우, 성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모두 관조시라 칭한다. 시인의 눈이 대상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관조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작품이 생산된다.

江南朝暮帶昇平	강남은 朝夕으로 취연이 평화롭고
細逐村娥若有情	한들한들 촌 아낙 따르는 모양이 정겨워라
時時隨雨前山渡	때때로 산너머 비가 내리면
洗出塵埃氣太清	세상 먼지 벗겨내니 맑기가 그지없네.

〈炊煙〉¹⁹⁾

17) 觀照詩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한시 장르의 하위 부류는 아니다. 연구자에 따라 관조시라 하지 않고 ‘관조의 시’, ‘관조가 주된 정서인 시’ 등으로 풀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는 관조를 논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관조시라 지칭하고자 한다.

18) 문선영, 「관조를 통한 현대시 심미적 태도 교육 방향 연구」, 『문학교육학 63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163쪽. 미적 경험의 특수성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칸트(I. Kant)는 관조를 무관심적 태도로 규정하였다. 무관심적 태도는 대상에 대한 주체의 사적인 이해 관심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칸트는 무관심적 관조를 진정한 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한 계기로 인식하였으며, 이때 관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관심의 상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배제한 채 주체가 직접 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적극적인 수행 과정을 요구한다. 또한 칸트의 견해를 잇는 스톨리치(J. Stolnitz)는 관조의 의미를 무관심적이면서도 대상에 대한 공감적인 인식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로써 관조의 태도는 대상에 대한 특수한 주목 능력으로서 이해된다.

19) 『新齋集』, 92쪽.

신재의 <炊煙>은 한쪽의 수채화 같다. 이 작품은 평화롭기 그지없는 시골의 한 마을에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른 것을 보고 그 정서를 시화한 작품이다. 작품을 보면 有情, 隨雨, 洗出, 氣太清 등 맑은 분위기의 시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래서 시가 맑다. 맑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겹다. 村娥가 있어 정겹고, 有情이 있어 정겹다.

炊煙의 묘사인 帶鼻平에서 평화로움이 느껴진다. 시제가 <炊煙>이니, 당연히 帶는 炊煙의 비유일 수밖에 없다. 이 모습이 평화롭다. 평평한 것도 같고, 초가지붕을 따라 완만히 올라가는 것도 같은 취연의 모습이 신재의 시선을 붙든 것이다. 이러한 취연이 시골 아낙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 정겹다. 신재가 본 것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지붕 마다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이다.

신재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밥 짓는 연기를 보고 깨달음을 얻는다. 자신이 구현하고 싶은 세상, 신진 사림이 구현하고자 한 세상을 본 것이다. 도학정치로 만들고자 했던 이상향은 어찌면 때때로 내리는 비처럼 항상 우리 곁에 있었지 않았나 하는 사색으로 이어진다. 그저 세상의 먼지인 욕심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성찰로 나아간다.

신재의 <炊煙>은 前景後情의 묘를 잘 살린 수작이다. 앞서 살핀 신재의 <天子菴遊觀>에서 신재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신재의 투사물이었던 늙은이를 하나의 시어로 집약한 것이 ‘氣太清’이었다. 이 氣太清이 <天子菴遊觀>에서는 자신에게 투사됐고, <炊煙>에서는 세계로 확장된 것이다. 신재가 일반적 시어가 아닌 ‘氣太清’을 각기 다른 작품에서 반복해서 사용한 것을 그의 기호로만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氣太清’은 신재의 신념이었고, <炊煙>은 이러한 그의 신념을 잘 내재화한 빼어난 작품이다.

丹禽飛下赤松從	봉황이 날자 신선이 나타나니(봉선화의 순결함이어)
一種名葩不妬容	모란의 아름다움을 부러워말게
誤落人間今幾載	무슨 잘못으로 인세에 묻혔는가
別春富貴樂相逢	모란 ²⁰⁾ 을 즐기던 봄날은 지나갔다네
	<鳳仙花> ²¹⁾

20) 富貴는 모란을 가리킨다. 출처는 周敦頤의 <愛蓮說>이다. “나는 국화는 꽃 중의 은자이고, 모란은 꽃 중의 부귀한 자이며, 연꽃은 꽃 중의 군자라고 여긴다.<愛蓮說>. 予謂菊, 花之隱逸者也, 牡丹, 花之富貴者也, 蓮花之君子者也”.

신재의 <鳳仙花>는 함축과 상징, 은유와 비유가 읽는 재미를 배가시킨다. 봉선화와 모란을 대비하여, 과거 화려했던 봄날(궁궐에서 성리학의 세계를 열고자 했던 시기)에 대한 갈망과 향리에 묻혀 봉선화처럼 결백을 지향하는 시심이 충돌하고 있다. 여기서 신재는 모란이자 봉선화라는 양립하기 힘든 두 대상에 동시에 투사되고 있다.

신재는 起句에서 丹禽²²⁾과 赤松²³⁾을 통하여 과거의 영화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봉황은 전설상의 새로 천하에 성군이 나타나 태평성대를 이루면 나타나는 새이다. 여기에서는 중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중종이 사림을 대거 등용하고, 성리학을 중흥시킨 것을 기구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묘 23현 중 하나인 신재는 기묘사화로 인세에 묻히게 된다. 年譜를 보면 신재는 중종 14년에 있었던 기묘사화로 인하여 유배를 갔다. 이것이 轉句의 謾落이다. 기묘사화로 동복에 유배되어 14년간 체류되었으니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다. 당연히 인세는 동복의 비유이다.

신재의 <鳳仙花>는 全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前 二句와 後 二句의 정이 분화되어 있다. 前 二句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여 나타난다. 중종을 중심으로 성리학의 세계를 열고자 했을 때의 그 이상과 포부는 봄날의 모란으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른채 기묘사화로 인한 나락,²⁴⁾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억울, 비판, 자책 등의 정서는 결백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서가 後 二句에 와서 내재화 된다. 봄이 지나갔으니 더 이상 모란을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다. 起句의 丹禽과 赤松은 기묘명현의 비유이자, 신재 자신이다. 春富貴樂相逢의 주체도 역시 신재이다. 처음과 끝을 이으면 신재는 봉선화에 투사되어 모란과 봄날을 즐긴 것이다.

하지만 이치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멈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봄 꽃인 모란과 여름 꽃인 봉선화는 만날 수 없다. 자신의 투사체인 봉선화는 순수, 순결, 결백의 상징이다. 봄을 지나야 만날 수 있는 꽃이다. 그래서

21) 『新齋集』, 91쪽.

22) 丹禽은 丹鳥이다. 단조는 봉황의 다른 이름이다.

23) 赤松은 옛 선인 赤松子를 지칭하는 말이다. 곧 신선에 대한 비유이다.

24) 기묘사화는 다른 사화와 성격에 있어 미묘한 차이가 있다. 출처도 불명확하고 역사적 해석도 다양한 ‘走肖爲王’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신재는 謾落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지나간 봄날을 좇지 말라는 것이다.

신재의 <鳳仙花>는 살펴본 바와 같이 고도의 상징이 뒤틀린 구조를 통하여 문예적 아름다움을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신재의 시 창작 기법은 그의 작품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신재 시문학의 특성이고 신재 시를 읽는 즐거움을 준다.

3-3. 交遊의 詩

交遊詩²⁵⁾는 지인과의 친목을 위하여 지은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시제에 贈, 寄, 懷 등²⁶⁾이 붙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이 더 많기에 시의 내용으로 구분한다. 조선조 유자에게 시는 친교의 수단이었다. 그래서 직접 시를 지어 주기도 하고, 지인을 생각하면서 시를 짓기도 했다. 이 모두를 교유시라 지칭하고 있다.

江路尋春晚	봄 따라 나선 강둑 길 해가 저물어
思君步月詩	그대 생각에 달빛 아래서 시를 읊네.
年年山澗曲	산모퉁이 계곡물이 변함없듯이
隨分有生涯	분수 따라 오늘도 살아가야지.

<贈尹橘亭衢>²⁷⁾

신재의 <贈尹橘亭衢>는 시제에 보이듯 굴정²⁸⁾에게 준 시이다. 호남 사림은 도학 정치를 주장하다, 사회에 연루되어 전라도 지방으로 이주해 와 뿌리를 내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부분 학맥과 인맥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²⁹⁾ 신재와 굴정 역시 호남삼경로 불려진 바와 같이 막역한 사이였다. 신재와 굴정은 학맥과 인맥이 겹치고 기묘사회에 뜻을 함께 했으니, 정계에 있을 때부

25) 交遊詩는 한시 장르의 하위 부류이다. 지인과의 친목을 목적으로 생산한 작품, 교유시의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6) 일반적으로 시제에 贈, 寄, 懷 등이 붙는 작품은 교유시이다.

27) 『新齋集』, 86쪽.

28) 백숙야, 「白雲風流와 三傑의 思惟」, 『한국시가문화연구』 28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1, 166쪽. 굴정 尹權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해남이다. 1516년 문과에 급제하여 賜暇讀書를 하였으며, 弘文館校理·知製敎·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弘文館司成·淳昌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기묘사회 때 윤구 역시 화를 입고 해남의 녹산으로 유배를 갔다.

29) 위의 논문, 174쪽.

터 친분을 쌓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록이 없기에 신재가 언제, 어떤 이유로 이 시를 굴정에게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사실 직접 주었는지 굴정을 생각하며 이 시를 지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시의 내용으로 보아 신재가 화순으로 유배온 이후에 지은 작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신재가 37세, 굴정이 26세 때 유배를 갔다. 이후 신재는 정계로 복귀하지 못했으며, 굴정은 20년이 흐른 후 정계에 나아갔다. 그러므로 시간의 진폭이 너무 커서 특정 시기를 추정하긴 어렵지만, 시의 내용과 정취로 보아 신재의 말년에 지은 작품으로 짐작한다.

신재의 <贈尹橋亭衢>는 오언고시라는 짧은 형식에 압축을 통하여 표현의 미를 발휘하고 있다. 승구의 ‘步月’이라는 시어를 제외하곤 일반어에 가까운 시어들이다.³⁰⁾ 이 ‘步月’이라는 시어는 두보의 대표작 <恨別>³¹⁾에서 유래하였다. ‘달빛 아래 시를 읊다.’라는 뜻으로 운치를 표현하는 조선조 유자가 즐겨 사용하는 유명한 시어이다. 실제 마지막 詩字는 사족이다.

이 작품은 신재의 굴정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문면에 드러나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작품이다. 그 속에서 신재와 굴정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마음이 드러나 있다. 교유시의 일반적인 특징을 잘 갖추고 있는 작품이다. 신재의 <贈尹橋亭衢>는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곡진한 정서가 어우러져, 굴정을 그리는 마음과 그에 대한 진심어린 충고가 잘 표현되어 있다.

신재의 <贈尹橋亭衢>가 좋은 이유는 시의 풍격에 있다. <贈尹橋亭衢>는 사공도의 24시품 중 ‘沖澹’의 풍격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신재는 前 二句에서 시를 지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봄이 와서 강변에 산책나갔다. 그대 생각이 나서 시 한편 지었다.’라는 내용이다. 전혀 요란하지 않다. 시적 과장도, 상상을 위한 은유나 압축도 없다. 그 가운데 곡진한 마음이 보인다. 신재는 後 二句에서 어제를 살아왔듯, 오늘을 살아가자고 이야기 한다. 평범하지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충고이다. 절구의 ‘隨分有生涯’는 굴정에게 한 말이나,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다. 충담소산의 정취가 물씬 풍겨나는 작품이다.

30) 江路, 晚春, 年年, 山曲, 分隨, 生涯 등은 일상용어에 가깝다.

31) 杜甫, <恨別>, 洛城一別四千里/胡騎長驅五六年// 草木變衰行劍外/兵戈阻絕老江邊// 思家步月清宵立/憶弟看雲白日眠// 聞道河陰近乘勝/司徒急爲破幽燕.

萬里思君夢	만리 밖의 임금을 그리고
三更念母心	깊은 밤까지 어머니를 생각하네.
兩情俱不歡	두 그리는 마음 그칠 새가 없구나
送子一盃深	한잔 술을 가득 부어 그대에게 보내네.

〈贈安順之〉³²⁾

교유시는 어느 상황에서 작품을 창작하였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품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시제에 贈安順之라고 하였으니, 신재가 안순지 즉, 사제당³³⁾에게 준 시이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사제당이 어머니 봉양을 위해 구례 현감으로 있을 때, 신재가 지은 시로 보인다. 사제당은 중종 12년에 구례 현감이 되었고, 14년에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이 작품은 내용과 意趣로 보아 이 시기에 신재가 조정에서, 구례 현감으로 가 있던 사제당에게 준 시로 보인다.

오언절구인 〈贈安順之〉의 기구에서 ‘君’이 나온다. 신재 시에서 유일하게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 君이다. 君을 임금으로 썼기에, 절구에서 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재가 10년 연배이니 子를 쓰는 것도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送子’보다는 ‘送君’이 자연스럽다.

오언절구의 전형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贈安順之〉의 前 二句는 한글자 한글자가 완벽하게 對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임금을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염려하는 주체는 화자인 신재가 아니라 사제당이다. 전구에 와서 신재는 충효를 다하는 사제당의 모습을 찬미하고 있다. 그런데, 절구의 주체는 신재이다. 기승전으로 이어지는 사제당의 행위에 대한 찬미를 절구에서 送盃하는 것으로 표출하고 있다.

신재의 〈贈安順之〉는 낯설음과 익숙함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오언절구

32) 『新齋集』, 87쪽.

3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순지(順之), 호는 기재(幾齋)·사제당(思齋堂). 남원 출신. 안구(安玖)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전주부윤 안지귀(安知歸)이고, 아버지는 전적(典籍) 안기(安璣)이다. 어머니는 조양임씨(兆陽林氏) 능성현령(綾城縣令) 임옥산(林玉山)의 딸이다. 1513년(중종 8)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정자 겸 경연전경(正字兼經筵典經)·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거쳐, 1517년 홍문관박사가 되었으나,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하여 구례현감으로 제수되었다.

의 전형을 前 二句가 보여주었다면, 전구는 당연히 이 시정을 경물에 의탁하고 전구로써 결구를 삼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랬다면 교과서적인 한 편의 오언절구일 것이다. 그런데 신재는 결구를 전구로 가져오고, 送子—盃深으로 시를 마무리한다. 그래서 이 작품은 全情으로 보이기도 하고, 전 삼구는 정으로 후 일구는 정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은 결구의 送子—盃深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관용적 결구이기 때문이다.

신재는 또한 전구에서 ‘兩情’이라는 시어를 비틀어서 사용하고 있다. 한시에서 兩은 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짝이라는 의미로 더 자주 사용한다. 兩情은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는 정’이나 확장을 해도 ‘벗이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렵다.³⁴⁾ 더구나 이 시대의 인식에선 충과 효가 둘 일 수 없다. 여기서는 두 대상에 대한 사제당의 마음을 兩情으로 표현했지만 낯설다. 이런 낯설은 조어를 익숙한 양정을 사용하여 낯설음과 익숙함의 조화를 구하고 있다. 이것이 <贈安順之>를 읽는 즐거움이다.

4. 結論

신재 문학에 대한 이해는 16세기 호남 문학을 이해하는 기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하는 작품 수가 너무 소략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재 문학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의미로 먼저, 신재 시문학 작품을 개관하였다.

『新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한시 작품은 17제 18수이다. 이 가운데 오언시가 3수, 칠언시가 15수이다. 이것으로 신재가 칠언시를 많이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시가 3수, 근체시가 15수로 고시보다 근체시 창작을 즐겼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신재가 오언보다 칠언을 선호한 것은 유장한 호흡을 좋아하였고, 고시보다 근체시를 즐겨 지은 것은 시형식의 특징을 고민했다는 논의의 작은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신재 시문학의 문예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전체 작품을

34) 실제 兩情은 작품에서 서로 그리워하는 정으로 자주 사용하는 시어이다.

내적 특성을 기준으로하여 자성과 관조, 교유로 분류를 하였다. 그리고 분류된 3가지를, 3개의 절로 나누어 각각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예적 아름다움을 논의하였다.

먼저 자성의 시로 분류한 신재의 <魚網>과 <天子菴遊觀>에서는 익숙한 시어와 신선한 구성을 통한 ‘거리두기’가 돋보인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관조 시에서는 고도의 상징이 뒤튼린 구조를 통하여 문예적 아름다움을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교유시에서는 낯설은 조어를 익숙한 시어를 사용하여 낯설음과 익숙함의 조화를 구하고 있는 점이 탁월하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신재의 시 창작 기법은 그의 작품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신재 시문학의 특성이고 신재 시를 읽는 즐거움이다. 신재가 이처럼 탁월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은 16세기 호남사림의 문화적 영향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갈구는 16세기 호남사림의 정체성이었다. 앞으로 신재 시문학의 형성과 계승이라는 차원의 영향 관계와 신재 시문학이 16세기 호남 사림 문학에 기여한 바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崔山斗, 『新齋集』, 草溪崔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89.
- 문선영, 「관조를 통한 현대시 심미적 태도 교육 방향 연구」, 『문학교육학 63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163~201쪽.
- 백숙아, 「신재 최산두의 시세계」, 『한국시가문화연구』 18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06, 207~235쪽.
- _____, 「白雲風流와 三傑의 思惟」, 『한국시가문화연구』 58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1, 147~180쪽.
UCI : G704-001062.2011..28.013
- _____, 「신재 최산두 한시를 통한 인문학적 문화콘텐츠 구축 방안」, 『한국시가문화연구』 53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24, 139~165쪽.
DOI : 10.5253/kpac.2024.53.6

| Abstract |

A Study on the Literary of Shinjae Choi Sandu Han-si

Kim Jin-wook
Chosun Univ. Prof.

Understanding Shinjae literature is the basis for understanding Honam literature in the 16th century. The 17th and 18th volumes of Chinese poetry are included in the 『Shinjaejip』. Of these, Owen-shi has three and Chileon-shi has 15. Shinjae mainly wrote Chileonshi. Go-shi also has three moves and Geunce-shi has 15.

Based on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Shinjae poetry literature, it was classified into magnetism, contemplation, and edification. In addition,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were discussed by dividing them into three sections according to the classified subject.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discussions focusing on literary beauty, it was revealed where Sinjaeshi's literary beauty stems from. Shinjae's <Eomang> and <Chunjaamyukan>, which are classified as Jaseong-shi, discussed the fact that 'distancing' through familiar shea and fresh composition stands out. Guanjo-shi discussed the fact that high-level symbols acquire literary beauty through twisted structures. Finally, Gyoyu-shi discussed that it is excellent to find a harmony between unfamiliarity and familiarity by using unfamiliar words and familiar words.

Shinjae's poetry creation technique can be easily encountered throughout his work. This is the characteristic of Shinjae poetry literature and the joy of reading Shinjae-shi. Shinjae was able to find such outstanding works because he was able to sublimate the cultural influence of Honamsarim in the 16th century to literature.

Reflection on the past and longing for a new order were the identities of Honamsarim in the 16th century. In the future, it is suggested that research on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ation and succession of Shinjae poetry and the contribution of Shinjae poetry to Honam-sarim literature in the 16th century continues.

Key words : Shinjae Sandu Choi, Honam-sarim Literature, Jaseong-shi,
Guanjo-shi, Gyoyu-shi

투고일 : 2025년 1월 17일 심사기간 : 2월 11일 - 2월 26일 게재확정일 : 2월 28일